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 서 명 :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 편 저 : 안 대 진
- 출 판 : 한국특허정보원
- 발행일 : 2006. 5. 30
- 가 격 : 22,000원

21세기 첨단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지식과 기술, 정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특히 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으로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시시각각 새로운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정보도 점차 방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술정보 확보와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각국의 노력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른바 특허3국이라 일컫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특허선진국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특허 중시 정책을 구가함에

따라 국가 간의 특허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특허분야에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용어들을 포함한 법률용어 영한 사전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국가 간의 특허분쟁에서 다소 혼란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법 용어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본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은 편저자가 미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할 때나,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Patent Law and Practice(Herbert F. Schwartz)"를 번역하면서 부딪히는 특허법률 용어들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본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의 편저자인 안대진은 한양대 전기공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적재산권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FRANKLIN PERCE LAW CENTER에서 수학하고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컴퓨터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자심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국제산업재산권 분쟁(공저, 1991)』(특허분쟁을 중심으로)와 『미국 특허 법과 실무(Herbert F. Schwartz(2004))』가 있다.

구 / 입 / 안 / 내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 시중 대형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 온라인 서점 : Yes 24, 알라딘
- 구 입 문 의 : 한국특허정보원 혁신기획팀

☎ (02) 3452-8144 (Ext. 162)